

15 광주일보
제17471호 2006년 6월 12일 월요일

월드컵 보다 더 재밌다

29일까지 광주극장서 '아시아 영화 특별전'

국내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아시아 각국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 영화 특별전'이 오는 2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는 실제 승려들이 출연해 관심을 끌었던 영화 '컵'의 감독 케엔체 노르부(부탄)가 7년만에 선보이는 '나그네와 마술사'를 비롯해 ▲2005년 칸 영화제 감주 주간 개막작인 멜로 영화 '내 고향에 있어줘'(싱가포르·에릭 쿠) ▲재일교포의 이야기를 다룬 '박치기!(일본·이즈츠 카즈유키) ▲강해정과 일본의 대표 배우 아사노 타나노부가 출연한 '보이지 않는 물결'(태국·펜엑 라타나루앙) ▲'시터즈 독'(태국·위시트 사사 나티양) ▲아프가니스탄 영화 '천상의 소녀'(아프가니스탄·세디그 바르막) ▲뮤지컬 포르노 그래픽 '흔들리는 구름'(대만·차이 밉량) 등 총 7편이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 동안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오는 관람객에게는 1천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상영 시간표 확인은 광주극장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224-5858

/특정기자 ksj@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문인협회(회장 함수남)는 '제12회 시민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비 심사는 오는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3층에서, 본 대회는 24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각각 열린다. 광주시에 소재한 초·중·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는 14일까지 문인협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대회는 예술시 1편을 외워서 낭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음악이나 악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문의 062-227-0811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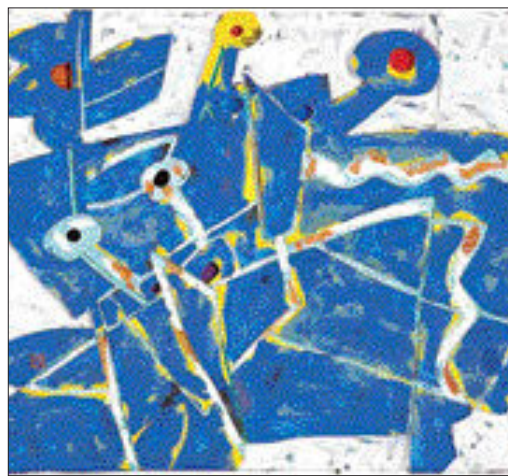
극단 '토박이' 배우·스텝 등 신입단원 모집

광주에서 활동중인 극단 '토박이'가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남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기획자, 연출가, 극작가, 배우, 스텝 등이다.

원서 마감은 오는 23일까지며 같은날 오후7시 광주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에서 오디션 을 갖는다.

지난 1993년 창단한 토박이는 '금희의 오일' '모란꽃' '정실홍실' 등 '5월 3부작'을 비롯,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으며 '시민연극교실' '어린이 연극교실' 등도 운영중이다. 062-222-6280, 011-424-8005

◇ **고침**=지난 6월9일자 16면 '원각사 대웅전 낙성식' 기사에서 '원각사 주지 도지 스님'은 도제스님이다, '행보스님'은 현고 스님이 맞기에 바로 잡습니다.



윤애근 작 '공-청음'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중진 한국화가 윤애근씨와 서양화가 정송규씨의 그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한국화가 윤애근(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교수와 서양화가 정송규(광주비엔날레 이사)씨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 13일부터 오는 7월16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 전시는 작가의 초기 작업부터 현재 작업세계까지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과거와 현재'전 성격 을 띠고 있다.

윤씨는 전통적인 수묵화에서 탈피, 현대적 회화의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는 작가. 기존 평면회화에서 볼 수 없는 '생생한' 공간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장지를 10~20장씩 덧붙여

끊임없는 변화 독창적 작품세계

점점지를 만든 다음 부조기법을 이용, 독특한 화면을 만든다.

윤씨는 '공(공)' 연작 시리즈를 통해 작품세계를 펼친다. 비어있는 공간, 초월적인 의미 등을 담고 있는 '공(공)'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덧붙인 '공(공)-희(喜)', '공(공)-우정' 등의 작품을 보여준다. 작품의 원천이 자연이기 때문에 나비, 벌레 등 곤충

고 관람객들에게 까지 전달되는 감성적 흐름을 지아나.

정씨의 '네모'는 전통 보자기가 모태다. 규방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초기에 보자기의 조형성을 화폭에 옮겨 평면적 질서를 만들면서 여성의 이미지와 상상력을 연결시켰었다.

미술평론가 장석원씨는 "무의미해 보이는 사각의



정송규 작 'Delight-행복한 설레임'

한국화가 윤애근 교수 '공(공)' 연작 ... '생생한' 조형미 표현

서양화가 정송규 씨 사각의 배열 서정적 리듬 회화성 이끌어

도 화면에 자주 등장한다.

또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전통 한국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회화세계를 고민했던 1960년~1980년까지 초기 작업세계도 보여준다.

정송규씨는 단순, 무의미하게 보이는 작은 네모(사각형)를 화폭에 배치해 서정적 리듬과 회화성을 이끌어내는 여류 작가다.

작품 '환희(Delight)' 시리즈는 작고 많은 네모들의 배열과 구성을 통해 캔버스에 윤율이 넘치게 하

배열은 그의 손길을 타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빛깔을 가진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때때로 작고 약한 것에서 큰 감동을 받고있는 것 처럼 그의 작품에서도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22일 오후 3시에는 정송규씨와 함께 하는 '작가와 만남'이, 7월5일 오후 4시 본관 전시실에서는 윤애근씨의 화집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 출신 동화작가 정채봉 5주기

'정채봉 전집' 1차분 9권 출간

순천 출신 동화작가 고(故) 정채봉(1946~2001)의 5주기를 맞아 '정채봉 전집'(샘터 펴냄) 1차분 9권이 출간됐다. 전집은 2007년까지 총 30종 33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1차분은 작가의 대표작인 '오세암'을 비롯해 자신을 날자마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스무살 어머니' 등 산문집 5권,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 장편 소설 '초승달과 밤베'(전 2권), 작가의 유일한 시집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등이다.

정채봉은 흔히 동화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소설과 시, 산문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특히 동화의 독자를 어린이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은 성인 독자들에게 작가의 순수한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됐음을 보여준다.

사실 순수의 회복이라는 작가의 주제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오세암'에는 연필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송진현씨의 삽화가 새롭게 실려있다.

동화작가 김병규씨는 작품 해설에서 "정채봉 선생님은 새 소리는 물론이고 꽃 향기와 물결의 출렁임, 풀벌레 울음까지도 번역할 줄 아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동화작가였다"고 썼다.

산문집 '눈을 감고 보는 길'과 시집 '너를 생각한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는 작가가 간암 선고 받은 뒤 투병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글로 옮긴 것이어서 더욱 코끝을 시리게 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임지형 & 현대무용단 화요예술무대

내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지난 1990년 창단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지형 & 현대무용단(예술감독 임지형 조선대 교수)이 13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화요예술 무대에 선다.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지난해 열린 제14회 전국무용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과 안무상 및 연기상을 수상한 '레밍턴'.

이숙영씨가 안무한 '레밍 턴'은 무리의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면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동물인 설치류 경쟁 속에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 이경화씨가 안무한 'As if'도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서로 얽히며 힘들어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 관계의 의미를 묻고 있다. 이경화·백낙희·김미선·유길호·임소영·최다정씨 등이 출연한다. 062-510-9331~2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性)의 명품 - 미스터 하이

새벽이 살아나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미스터하이가 특별한 이유

- 특수수출, 한정판, 특수시
- 시골로 도착하는 남성의 자신감
- 검증된 안전함(피로가게 4등급)

미스터하이 국내 사업부

080-505-0770

www.himshi.com

미스터하이